

# 전두환 회고록은 5·18 왜곡...9년 만에 배상책임 확정

### 대법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헬기사격·권 일병 사망사건 진실 판명 7000만원 배상해야...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 표현 51개 삭제 명령 5·18 관계자·시민 환영...“근거 없는 역사 왜곡·편향 종식되어야”

전두환씨 일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것과 관련, 5·18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책 출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씨 일가의 5·18 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물론,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표설' 등 왜곡·편향 주장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소송 승계인인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전재국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2심 재판부에서 주문했던 출판금지 명령을 확정하고 회고록 중 5·18을 왜곡하는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제기된 뒤 9년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원고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는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 실려 있었으며, 계엄군의 발표가 자위권 발동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자신이 '5·18의 치유를 위한 씩김굿의 제물'이라는 등 내용이 실려 있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으로 5·18 진상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가 정립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에서는 일부 5·18 관련 사건들과 관련된 '허위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앞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마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결론을 내놓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가려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권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계엄군 진술에 비춰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헬기 사격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전일발명 총탄 흔



지난 202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던 전두환씨.



12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회원들과 법률대리인 김정호(왼쪽 두번째) 변호사, 광주시민 등이 대법원 앞에서 전두환씨 관련 판결 선고 결과를 축하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전씨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현의 자유' 주장도 일각에서 반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 5·18단체 유공자들이 그동안 진상 규명·명예 회복이 지체돼 받아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본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명예·신용·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5·18 관계자를 비롯한 광주시민들도 대법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전씨의 역사왜곡과 편향,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5·18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화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5·18관계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법과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편향에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중에 사방해 공소가 기각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처녀 수입' 물의 김희수 진도군수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송치 '논란'

### "특정업체에 의도적 행정 불이익"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희수 진도군수가 특정 업체에 의도적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1일 김 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사이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개입, 의도적으로 토석 채취·운반업을 하는 A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차례 진도항 항만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왔는데,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진도군 내부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최종 결재권자인 김 군수가 개입해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A 업체에게 항만시설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업체 측은 김 군수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B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군수가 B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김 군수와 B업체 대표를 각각 알선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신안 해상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 지점에 임시 등대 설치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콘제누비아2호가 좌초 사고를 낸 것(광주일보 2025년 11월 21일 1면 등)과 관련, 정부가 사고 지점에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신안군 쪽도 일대에 4m 높이의 철제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등대 설치 지점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콘제누비아2호'가 좌초된 해역이다.

등대의 불빛 도달거리는 13.9km이며, 등대 식별을 돕기 위해 등대 본체와 불빛 색상은 백색과 홍색으로 교차되도록 했다.

임시 등대는 오는 10월 콘크리트 구조의 정식 등대로 대체해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좌초 등대가 항로 이탈사고 예방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강진군, 학폭 논란 황영웅 출연 선정 기준 공개하라"

### 적정성 검증 촉구 청원 빗발

학폭논란을 빚은 가수 황영웅의 지역축제 출연을 확정하면서 논란을 빚은 강진군(광주일보 2월 12일 7면)에게 출연자 선정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원 홈페이지 '소통사 전담'에는 이날 '강진군 관리감독 책임 및 공공행사 적정성 검증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은 "강진군은 방송 제작진 등을 통해 과거 상해 사건으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공개 확인된 인물을 공연무대 출연자로 확정했다"며 "가족과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는 공공행사의 무대에 폭력 전력이 공개된 인물을 출연시키는 게 적절하지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또 "관리감독 기관으로 강진군의 책임 있는 판단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군의 출연

제한 기준 존재 여부, 청소년 보호 관점 검토, 지역 이미지 및 행사 리스크 평가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강진군에게 '출연자 선정 검토 과정', '적정성 판단 기준 및 내부 지침', '위험성 평가 및 청소년 보호관점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고 공공행사 출연자 리스크 관리 기준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현재까지 128명이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전남도는 청원 의견에 대한 공감 표시 20개가 30일 동안 달리면 해당 부서를 통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오는 21일부터 개막하는 제54회 강진정자축제 공연무대에 가수 황영웅을 출연시키기로 했다가 적절성 논란에 휘말렸다. 군은 출연 여부 재검토를 거쳐 "(학폭)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지난 6일 출연을 강행하기로 확정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나병영(541110-1\*\*\*\*, 2025년 11월 17일 사망, 전남 담양군 금성면 평신기길 33)의 법정상속인 이동춘, 나순아, 나애심, 나경아, 나현채는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고자 광주가정법원 2026년 2월 3069호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고 2026년 2월 10일자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은 위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함.

2026년 2월 13일  
• 한정승인신청인: 이동춘, 나순아, 나애심, 나경아, 나현채  
• 채권신고장소: 전남 담양군 금성면 평신기길 33 (금성면)

### 특별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영미(430704-2XXXXXX)  
• 최후유족: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원길 105-1 (화봉리)  
• 피상속인 망 박영미의 상속인인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5년 113호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13일  
• 상속인: 1. 임지영(670504-2XXXXXX) 학남시 신장로56번길 38, 102호 (천현동)  
2. 임미정(730703-2XXXXXX) 학남시 신장로56번길 38, 102호 (천현동)  
3. 임주오(651030-1XXXXXX) 서울 상동구 망나루로 278 (상수동2가, 문명빌라)  
4. 임주영(070025-1XXXXXX)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원길 105-1 (화봉리)

• 신고기간: 2026. 2. 13. ~ 2026. 4. 25.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임지영의 주소

###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 2. 6.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 4. 15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13일  
주식회사 스마트건설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박곡길 5, 2층  
청산인 오미나

kwangju.co.kr

##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예약구독 (062) 220-0550

74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광 산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8001 • 충 앙 222-0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벽 운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풍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 산 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0-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